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자〉와 〈진정으로 하지 않은 자〉는 ‘삶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진정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는 ‘생명길, 하늘나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길, 흑암의 세계’로 간다.
2. 육신이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자〉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지 않는 자〉는 ‘삶의 길 자체’가 아예 다르다.
3.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굳센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자〉와 〈보통으로 사는 자〉는 ‘삶의 길과 차원’이 아예 다르다.
4.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삶의 길’이 아예 달라진다.
5. 기도도 〈생각과 정신을 심혈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와 〈보통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의 길’이 아예 다르다.
6.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신일도, 생각 일도 해서 하는 일〉과 〈보통으로 하는 일〉은 ‘일 자체’도 ‘방법’도 아예 다르다.
7. 돌을 세울 때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세울 때〉는 동서남북으로 틀을 짜고 그 안에 돌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보통 마음으

로 세울 때>는 돌 하나만 놓고, 뒤에 돌을 받쳐서 쌓는다.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할 때>와 <보통으로 할 때>는 ‘일 자체’가 다른 것이다.

8. 한 편의 시를 써도 <생각>과 <마음>을 총동원해서 쓰면, 보통으로 쓸 때와는 ‘다른 방향’과 ‘내용’으로 쓰게 된다.

9. 집을 지을 때도 <총력>을 다해서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의 설계와 구상’을 받아 짓게 되어 그 이상의 작품이 없다. 그러나 보통으로 생각하고 지으면 ‘자기 구상과 생각의 설계’로 짓게 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사랑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한 사람>과 <보통으로 한 사람>은 ‘그 위치’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

11. 기도하려고 하는데, <두 길>이 보였다. <한길>은 ‘올라가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자의 길>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길’로, <보통으로 기도하는 자의 길>은 ‘내려가는 길’로 보여주신 것이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부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대해 주시는 차원’이 다르다.

13. 자기가 <삼위와 주를 진정으로 간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대해 주시는 길’ 이 다르다.
14. <자기>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 도 대해 주신다.
15. <아는 자>가 행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을 대하는 대로 ‘인생길’ 이 달라진다.
17.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기도>하니, ‘가는 길’ 이 달랐다. 가는 길에 하나님과 ‘이야기’ 도 하고, ‘구경’ 도 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먹고 싶은 과일’ 도 먹게 하면서 대화해 주셨다.